

인도네시아 자바 농촌에서의 현지조사: 지역연구 과정에 대한 자전적 서술*

김 형 준**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연구(area studies)가 학문적 활동의 한 분야로 부상했다. 정치권에서의 ‘세계화’ 담론에 발맞추어 대두된 지역연구, 혹은 해외 지역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연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에 편입되었고, 그와 관련된 학회의 활동이나 연구 역시 급팽창했다(전제성 2006: 116-124).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은 곧이어 지역연구 방법론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랜 연구 전통을 가진 서구학계에서 지역연구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김경일 1997: 61-69, 전경수 1999: 43-45) 다른 분과학문과 구분되는 지역연구 나름의 방법론과 인식론을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따라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학문의 느슨한 연합 연구를 지칭하게 된 지역연구에서 방법론은 각 분과학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학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8).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hjunkim@kangwon.ac.kr

지역연구 관련 학문 중 직접 자료 수집의 전통을 가장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분야는 문화인류학이다. 연구대상자와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전통이 말리노프스키(Malinowski)에 의해 확립된 이후 90여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는 현지조사(fieldwork)라 불리는 말리노프스키식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처럼 오랜 전통이 세워졌다고 해서 문화인류학에서 매우 구체적인 수준 혹은 ‘매뉴얼’이라 불릴만한 수준의 연구방법론을 세련화시켜온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뉴얼 식의 방법론은 그 학문적 속성상 쉽게 만들어질 수 없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삶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인류학자에게 있어 세부적으로 규정된 연구 절차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현지조사 방법론의 핵심을 규정하는 요소라고까지도 평가될 수 있다.

연구의 구체적 절차가 세부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인류학자가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현지조사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다른 학자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인류학자는 어떻게 현지조사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형성해왔다. 문화인류학에서 방법론적 훈련의 핵심은 다른 학자의 연구 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지조사에서 겪게 될 시행착오의 과정을 회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축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글은 필자가 경험한 인도네시아 자바에서의 현지조사 경험을 자전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학적 조사와 관련된 중심적 논의가 현지조사 과정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수집된 자료의 성격과 관련된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예를 들어 Clifford & Marcus 1986, Marcus & Fischer 1986), 문화인류학적 현지조사 경험기 중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최협 1997 참조), 이 글에 제시된 자료는

지역연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준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적 자료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볼 때에 이 글은 의미 있는 비교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다. 다른 문화인류학자나 지역연구자와 비교할 때 필자가 경험한 지역연구가 상당히 차별적이고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연구의 시작 동기부터 실제적인 현지조사 과정까지 필자의 연구 과정 대부분은 체계적으로 계획된 방식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 필자의 연구 대상 국가와 조사지 선정은 상당히 우연적인 계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필자는 현지어를 배우지 않은 채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주제 역시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변경되었다. 필자의 이런 상황은 뚜렷한 학문적 관심과 확고한 신념을 통해 연구대상 국가와 조사지를 선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사 주제와 관련된 사전 연구를 진행하며, 철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연구 방식을 선택하여 현지조사를 행하는 방식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비체계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우연적인 방식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것 역시 그와 반대되는 방식이 그러한 것처럼 지역연구에 다가가고 지역연구자로 성장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조사는 1992년 9월부터 1994년 6월까지 22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족자까르따(Yogyakarta)의 농촌 마을에서 진행되었으며, 논문의 주제는 이슬람의 변화 과정 및 그것이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본문에서는 필자의 현지조사 단계를 좇아 그 연구과정의 기술될 것이다. 연구지역 선정과 사전조사, 조사마을의 선택, 초기적응과정, 언어 습득과 인간관계 형성, 본격적인 현지연구 진행, 조사의 마무리 등 현지조사의 흐름에 맞추어 필자의 상황이 재구성되어 제시될 것이다.

II. 연구지역 선정과 사전연구

필자의 인도네시아 지역연구 입문은 매우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1989년 해외지역연구를 지원하는 국비장학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시 지역연구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이었는데, 타문화를 연구해보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필자로서는 어느 지역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며, 상황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에 지원하게 되었다. 장학금 수혜가 확정된 후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연구를 행하겠다는 기대를 품은 채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개략적인 연구주제만을 구상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필자는 연구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던 연구비자 신청을 위해서 주(province)나 도(district)와 같은 특정 지역을 신청 서류에 적시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필자가 입학한 학과의 특성에 기인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박사과정생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이유로 인해 학생의 전공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대범주가 아닌 매우 세부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했다. 다른 학생들의 연구지역이 자바가 아닌 짜르본(Cirebon)이나 줌방(Jombang), 플로레스(Flores)섬이 아닌 응아다(Ngada)나 엔데(Ende), 말루꾸(Maluku)가 아닌 할마헤라(Halmahera)나 스람(Seram)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전공자’ 혹은 ‘자바 전공자’와 같은 식의 범주는 존재하기 힘들었다.

인도네시아보다 더 세부적인 지역에 대해 고려해 본적이 없던 필

자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농촌에서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수도작 지역이 많은 자바 정도로 연구지를 제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충분했고, 지도교수의 조언을 받아드려 최종적으로 족자까르따(Yogyakarta: 이후 족자)를 연구지로 선택하게 되었다.¹⁾ 연구 지역이 어떤 속성을 띤 곳인지, 어떤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곳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선택해야 했던 상황을 필자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연구가 가능하지’라는 식으로 합리화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뚜렷한 학문적 관심 없이 상황적 논리에 강제되어 지역연구 대상을 인도네시아로 선정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지조사 지역을 선정한 셈이었다.

조사지를 선택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전연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지도교수와 튜터식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바와 관련된 여러 주제의 책을 읽고 토의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연구지역과 관련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었는지, 이러한 중구난방식의 글읽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혹은 자바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형성하고 정보를 축적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튜터식 수업이 몇 달 진행된 후 보다 느슨한 방식으로, 즉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짧은 글을 쓰는 방식으로 수업이 전환되자, 필자는 곧바로 연구 전략을 바꾸었다. ‘선택 후 집중’이 그것인데, 연구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소주제를 선택한 후 그에 대한 책만을 집중적으로 읽는 방식이었다. 당시 고려하던 연구주제가 농촌 마을의 계급갈등 양상 및 이 과정에 개입하는 세계관의 작동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바의 농업이나 세계

1) 족자는 중부 자바의 도시와 주변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다. 원래 명칭은 ‘응아육야까르따 하디닝랏’(Ngayogyakarta Hadiningrat)이지만, 인도네시아 독립 후 구철자법에 따라 Jogjakarta, 신철자법에 따라 Yogyakarta로 표기되는 과정 속에서 ‘육야까르따’라고도, ‘족자까르따’라고도 불린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보통 축약형이 이용되는데, ‘족자’, ‘육조’, ‘육야’ 등이 그것이다.

관에 대한 연구가 주요 사전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택 후 집중’ 전략의 장점은 특정 지역이나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단기간에 섭렵할 수 있다는 점으로써 자바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필자와 같은 입문자에게 유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주제와 관련되어서는 자바 연구를 계획하는 다른 학생에 견줄만한 독서 수준을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단점으로 이어졌다. 제한된 주제와 지역으로 연구의 폭을 한정시킴에 따라 연구지역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지식 부족 상태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글 읽기의 초점이 이론적 논의로 집중됨에 따라 반복적인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이해 수준 역시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떠나기 전까지 1년 반 정도에 걸쳐 사전연구를 했지만, 관심 주제와 관련된 학문적 논의를 제외할 경우 자바나 인도네시아의 타지역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서 ‘선택 후 집중’은 매우 적절한 전략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자바의 농업이나 세계관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학생과 토론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이는 강한 성취감을 가져다주었다. 물론 기초적 상식 부족이 만성적 문제로 되어감에 따라 지역연구자로서의 위상을 실추당하는 당혹스러움을 계속 느껴야 했다. 예를 들면, 자바 이슬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토론을 벌일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도 알 수 있을 자캣(zakat)이라는 어휘를 몰라 좌절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선택 후 집중’ 전략은 지역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언어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입학 초기 인도네시아어 수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했지만, 이후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언어 습득을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언어를 배우지 않고 그 시간에 책을 읽겠다는 막무가내 식 선택을 할 수 있던 데에는 학과의 지역연구 전통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현지조사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인해 박사과정생의 조사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는데, 불문율처럼 언급되던 내규에 따르면 현지 학생의 경우, 즉 인도네시아 학생이 인도네시아를 연구할 경우 최소 12개월, 외국인의 경우 최소 18개월이었다. 하지만, 18개월의 기간 앞에 ‘최소’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듯이 학생들의 조사 기간은 이보다 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3년 넘게 조사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놀라움 없이 거론되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필자 역시 조사기간을 2년여로 설정하리라 마음먹었고, 이는 언어를 배우지 않으리라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년이나 조사하게 될 텐데, 언어는 현지에서 천천히 배우고 현지에서 할 수 없는 연구를 먼저 진행시키자는 것이 당시의 판단이었다.

필자가 조사지역을 선정하거나 사전연구를 행한 방식은 다른 연구자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학문적인 고려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조사지를 선정하고 연구지를 포괄하는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이고 비교론적으로 행한 후 조사를 시작하는 타연구자와 비교할 때²⁾, 필자의 현지조사 준비기는 이러한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단기간에 준비를 끝내야 했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던 당시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지만 이런 식의 준비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사지에 대한 균형잡힌 지식을 습득하거나 비교론적 시야를 넓힐 가능성은 쉽게 제공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선택 후 집중’은 짧은 준비 기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현지연구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연구자에게서만 고려될 수 있을 방식이라 생각된다.

2) 인도, 멕시코, 미국, 일본에서 조사한 한국 인류학자들의 체계적인 조사준비 과정 및 조사지 선택과정과 관련되어서는 최협(1997)을 참조할 것.

Ⅲ. 현지조사의 시작: 조사 마을 선정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조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연구 허가를 얻어야 했다. 수하르토 통치 하의 강력한 사회통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농촌 마을에 거주하며 연구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인해 공식적 허가를 받는 일 역시 쉽지 않아서 필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1년 3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연구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연구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조사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가장 복잡했던 문제는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써 응급처치 훈련을 받고 열대병 전공의와 면담해야 했으며 많은 양의 의약품을 구입해야 했다. 가장 큰 위협이라 여겨졌던 말라리아의 경우 초기에 개발된 치료제에 면역된 모기가 있었기에, 세 가지 종류의 약³⁾과 탈수약을 2년 치 구입해야 했다. 그 이외에도 콜레라, 장티푸스, 수막염, 황열병, 과상풍, 디프테리아,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을 했다.

한 뭉텅이의 의약품, 두 대의 카메라와 두 대의 녹음기, 두꺼운 여행안내서와 몇 권의 소설책, 몇 벌의 여름옷 등을 준비하고 인도네시아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며칠을 연구비자를 받기 위해 분주하게 보냈으며, 일주일 후 조사지역인 족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기쁨, 흥분, 신기함, 낯섦, 당황스러움, 후회, 놀라움, 당혹스러움, 막막함 등 여러 감정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생겼다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막막함과 두려움이 강해졌다. 조사 마을을 선정해야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복안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떤 방식을 통해 조사지를 선정할지에 대해 필자는 별다른 대책

3) 클로로퀸(Chloroquine), 말로프림(Maloprim), 메프로퀸(Mefloquine)이 연구 당시 개발되어 있던 말라리아 예방제였다.

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연구허가를 받고 족자에 오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 과정을 고민할 여유가 많지 않았던 사실이 단기적인 이유였다. 장기적 수준의 이유로는 조사지 선정에 대한 생각이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시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자가 연구주제로 설정한 전통 믿음체계와 이슬람을 포함한 세계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리뷰하면서 찾아낸 특징은 학자들이 ‘모 아니면 도’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일부는 전통 믿음체계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주장했다. 이들의 글을 읽으며 두 주장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주장에서 각기 설득력을 발견한 것은 정상적이 아니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사대상 때문이었다. 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최적의 대상을 선택한 후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⁴⁾ 이런 식의 조사대상 선택에 불만을 가졌음은 당연했고, 특정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구대상 선정 그리고 조사 대상에 대한 균형적이며 맥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떠올린 개념이 ‘보통 마을’이었다.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마을을 조사지로 정할 경우 다른 학자와 달리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중립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마을’의 선정방식을 모색하던 중 떠오른 대안은 명확한 기준 없이 조사대상을 정하는 것이었지만, 사고는 여기에서 멈추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의 문제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족자에 도착하자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고, ‘보통 마을’을 찾기 위한 방법, 즉 어떤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조사지를 선택하겠다는 생

4) 이러한 연구 경향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형준(1998: 10-17)을 참조할 것.

각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는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전체 자바와 비교할 때 족자가 매우 좁은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에도 수천 개의 농촌마을이 존재했다.

뚜렷한 기준 없이 조사지를 찾다보면 ‘보통 마을’을 접하리라는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작하게 고민해보자 명백해졌다. ‘보통 마을’, 즉 보통의 인구, 성별구조, 친족구조, 직업구조, 농지소유구조, 경제구조, 교육정도 등을 가진 마을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통을 규정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했다.

‘보통 마을’과 보통을 규정할 특정한 기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필자는 특정 기준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쪽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조사지 찾기에 적용하고자 채택한 전략은 우습게도 우연이었다. 어차피 알아보다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농촌마을을 접할 것이며, 그 중 아무 곳에서나 조사를 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매우 대책 없는 전략이었지만 나름의 고민이 투영된 방책이었다.

이후 현지 대학교수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추천한 5명의 농촌 지역 거주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 각각의 마을을 방문했고 그 중 한 곳인 꼴로종고(Kolojonggo: 가명)를 큰 망설임 없이 조사마을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조사지로 나를 인정한 선생은 영어선생이면서 달랑(dalang)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자바인의 세계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그림자극(wayang)을 공연하는 사람이 달랑이었기에 그의 경력이 앞으로의 조사에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연구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소는 마을의 지형이었다. 다른 마을과 달리 꼴로종고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을을 방문하고 오는 길에 볼 수 있던 넓게 펼쳐진 논은 알 수 없는 매력을 주었고 이 매력에 빠지기로 선뜻 결정했다. 족자에 도착한 후 2주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인도네시아를 연구하기로 결정한 후 대략 3년 반, 호주에서 유학을 시작한 후 대략 21개월, 족자에 도착하고 1달여가 흐른 1992년 9월 필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연구 마을로 이사했다.

IV. 초기 적응과정

(1) 언어 습득과 인간관계 형성

현지에서는 현지인이 사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문화인류학적 조사 원칙을 전적으로 따르려 했던 까닭에 조사지에서의 초기 적응은 커다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먹는 것과 ‘싸는 것’이 그나마 문제였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에 현지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기로 결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의 삶이 시작되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언어였다. ‘선택 후 집중’ 전략으로 인해 언어 습득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할 수 있던 현지어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인사말 정도였다. 조사 마을을 찾으면서 도시 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조사지 사람과 소통하기에는 불충분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느긋하게 언어 능력의 향상을 기다릴 수 있었다.

언어 배우기와 관련되어 필자는 당시 매우 좋은 조건에 놓여 있었다. 삶과 연구를 위해 언어를 배워야 할 뚜렷한 목적의식과 동기가 존재했다. 또한, 한국어를 쓸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인도네시아어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조사지 주민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필자가 만난 사람 모두는 언어 가르치기를 즐겨했다. 이들은 말 못하는 필자를 당연한 존

재로 받아드렸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려는 필자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재미와 열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좋은 환경 덕분이었는지 조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언어능력의 향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조사지에 정착하고 4-5개월이 지나자 주민들이 필자에게 하는 말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2-3개월이 더 지나자 의사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일이 얼추 가능해짐을 느꼈다. 이 후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필자의 언어감각이 뛰어났더라면 훨씬 더 빨리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부류에 속하지 않았고 언어 능력이 천천히 갖추어졌지만, 이조차도 도시나 학교에서 배운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느긋하게 기다린 보람이 있어 조사를 시작하고 8-9개월이 되자 언어문제에서 일정정도 해방되었다고 느껴졌다.⁵⁾

언어 습득만큼이나 인간관계도 커다란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지만 자바문화의 특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감정 표현을 절제하며,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갖는 인간관계를 선호하며,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자바 문화를 고려해보면⁶⁾ 표피적 수준의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농촌사회는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조사 초기의 인간관계는 하숙집 주변의 사람과 먼저 형성되었고, 이후 조금씩 그 범위가 넓혀져 마을사람 전체, 나아가 이웃 마을사람을 포괄했다. 초기 관계형성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문화인류학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상황이 필자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것인데

5) 당시 언어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는데, 인도네시아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자 자바어를 배워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로 인해 자바어를 본격적으로는 습득하지는 않았으며, 듣기 위주로 자바어 능력을 향상시켰다.

6) 자바 문화의 특성과 관련되어서는 김형준(2008)을 참조할 것.

외부에서 온 연구자에게 처음 접근하는 현지인이 그 사회의 주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이용숙 외 2012: 94).

필자를 조사지로 인도한 영어선생은 그 학력과 직업상 마을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져야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가 마을 토박이가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더욱 중요한 측면은 일반인들과 차이나는 성격이었는데, 그는 잘 난 척을 많이 하고 마을 사람을 깔봤으며 마을 공동의 일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그의 행적을 보면 필자를 마을로 소개한 이유에는 필자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외국인 특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신분은 농촌 마을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제적 성격을 가졌는데, 이러한 필자를 통해 자신의 위신을 높이하고자 했던 것 같다. 조사 초기 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다른 주민들 역시 영어선생과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과 비교할 때 지도자급 주민들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신중했고 필자의 정체성과 활동이 완전히 노출되고 나서야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접근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마을 내 지도자의 존재가 뚜렷해지자 필자가 이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었다는 표현이 보다 적절한 듯하다. 이후 이들과의 관계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22개월에 걸친 현지조사 기간 동안 필자와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는 큰 갈등이나 긴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보여줄 하나의 예가 인터뷰인데, 조사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모두를 통해 필자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인터뷰 역시 보통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⁷⁾

7) 현지 조사 기간 전체를 통해 경험한 예외적인 경우는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도시 외곽의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들과 함께 나를 맞이한 기숙학교의 지도자, 즉 끼야이(kiyai)가 인터뷰를 하던 중 카피르(kafir, 이교도)라고 나를 지칭한 것이다. 이슬람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후에 사건이기에, 이런 식의 호칭

이처럼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된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이야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하며 이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생겼지만, 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이들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은 자바인의 성향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감정표현의 억제를 지고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조사지 주민이 필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필자를 문전박대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많지 않았다. 외국인이며 박사과정생이라는 지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을 조사마을에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실수나 잘못 역시 쉽게 용서될 수 있었다.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이 없고 언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연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터뷰를 시작한 후 일 년여의 기간 동안 학위 논문에 쓸 핵심 자료를 거의 모두 얻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무난한 연구 진행 이전에 커다란 파도를 하나 넘어야 했는데 연구 주제의 변경이었다.

(2) 연구 주제 변경: 계급투쟁에서 이슬람으로

학위 논문으로 계획했던 연구주제는 자바 농촌 마을의 계급투쟁 양상 그리고 여기에 개입하는 세계관의 작동 방식, 그 해석·재해석의 과정과 일상적 적용 방식을 밝혀보는 것으로서, 제임스 스캇(James Scott)의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를 읽으며 형성되었다.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꼴로종고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듯했다. 마을은 논으로 들

이 얼마나 무례하며 일탈적인지 이해했지만, 이를 학생 앞에서 품을 잡으려는 선생의 호기로 치부해버림으로써 더 이상의 긴장이 유발되지는 않았다.

러싸여 있었고 조사 초기 알아본 하숙집 주변 이웃 대다수의 직업은 농민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이 농업이었기에 조사 초기 빈번하게 논을 방문하여 노동 과정을 관찰했는데, 곧이어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서쪽의 2헥타르 남짓한 사탕수수 밭에서 밤에 화재가 일어난 것이었다. 환한 불빛을 내며 타들어 가는 사탕수수 밭 그리고 화재 진압에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던 마을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필자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식민지 시기 사탕수수밭 방화가 정부의 압력에 대항하는 농민의 저항양식이었기에, 책으로 읽으면서 상상에서나 그릴 수 있던 ‘약자의 저항’을 눈앞에서 경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 농업에 대한 관심은 급상승했고 그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파국이라 불릴만한 상황이었다. 이전까지 마을사람들은 주민 대다수가 농민이라고 말했었고 주민등록 자료 역시 이를 뒷받침했지만 이 정보는 완전히 틀리지는 않지만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농사짓는 사람은 많았지만 전업농은 매우 적어서 전체 가장의 10%정도만이 이 범주에 해당했다.⁸⁾

연구지가 농업 중심의 마을이 아니며 경제 활동의 축이 마을 외부의 비농업 부문에 놓여 있음은 필자가 계획한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다. 농업 비중이 적다면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한 계급분화, 영농을 중심으로 한 계급투쟁 역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

8) 전업농의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이유는 마을 사람 대다수가 마을 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의 취업이 활발해서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고 상점의 점원, 운전기사나 조수로 일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비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원인으로 당시 고려한 점은 도시와의 가까운 거리였다. 마을이 도시에서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에 도시로의 통근이 용이했던 것이다.

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계급적 대립이라는 조건 하에서 유효한 ‘약자의 무기’, ‘일상적 저항’과 같은 개념을 이 마을에 적용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았다.

경제생활 관련 자료가 축적될수록 절망감은 커져갔고 ‘보통 마을’을 고집했던 조사지 선정 방식에 대한 후회 역시 깊어졌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자 필자는 해결책을 모색했고, 두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조사 마을을 변경하는 것이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시에 의존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마을을 찾았다면 계획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듯했다. 조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조사지를 바꾸더라도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았다. 두 번째는 조사 마을을 고수하고 연구주제를 변경하는 일이었다. 이는 ‘보통 마을’을 찾으려 하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연구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학자를 비판하면서 얻어낸 생각이 ‘보통 마을’이었다. 농민이 계급투쟁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꼴로종고를 버리고 농민이 서로 투쟁할만한 곳으로 조사지를 옮긴다면 이는 필자가 비판하던 학자의 행보를 그대로 쫓는 것처럼 보였다.

조사지 변경을 염두에 두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을 몇 차례 방문했고 식민지 시기 설탕공장에 대항하여 투쟁했던 역사를 가진 마을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런 방문을 하면서도 ‘보통 마을’을 버려려하는데 대한 회의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달여의 고민 후 드디어 꼴로종고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짧게나마 거주하면서 마을에서 발견한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 역시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했다. 먼저 마을 주민의 이슬람관련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편에 속했다.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지만, 사전조사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자바에서 마스지드(masjid)는 하나의 면(Kelurahan)에 하나 정도 건립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조사 마을인 꼴로종고와⁹⁾ 인근 마을 모두에 마스지드가 하나씩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특이한 모습처럼 비추어졌다. 이처럼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해 보였지만 마을에는 놀라운 정도로 높은 비율의 기독교도가 거주하고 있었다. 30퍼센트에 이르는 기독교도 비율은 자바 전체를 놓고 볼 때 유례가 없을 정도였고 기독교 비율이 높은 족자의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에도 몇 배에 해당했다.¹⁰⁾

이 후 꼴로종고에서 조사를 계속하게 되면서 연구의 초점은 이슬람을 포함한 종교적 삶에 놓이게 되었다. 이슬람의 변화 양상, 과거 큰 영향력을 가졌던 혼합주의적 종교 관행, 기독교의 발전사와 현황 등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이슬람과 전통 믿음 체계와의 관계, 이슬람과 기독교도의 관계로 연구를 확대시켰고 이러한 소주제는 이후 박사논문의 핵심을 구성했다.

V. 현지조사의 전개 과정

(1) 참여관찰과 인터뷰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전 연구를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이들

9) 행정적으로 보면 연구지인 꼴로종고는 면의 하위 행정단위로서 우리의 ‘리’에 상응할 두순(dusun)에 해당했다.

10) 1990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자바 농촌지역의 기독교도 비율은 1.0%였으며, 도시 지역은 7.5%였다. 상대적으로 기독교도 인구비율이 높았던 족자의 경우 도시지역이 13.2%, 농촌지역은 9.0%에 이르렀다(BPS). 족자의 기독교도 비율을 고려할지라도 조사지의 기독교도 분포는 매우 높은 편에 속했다.

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를 잘 기록해 놓는 것이 주요 방법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체계적이지 않은 방식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조사방법론을 배우고 몇 차례의 짧은 조사를 한국에서 행하면서 경험적으로 습득한 것이었다.

현지조사에서 이용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리한 문화인류학자의 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프레들리(Spradley)의 교과서적 저술(1980)을 살펴보면 기술적 관찰법, 문화 영역의 분석, 초점 관찰, 분류적 분석, 선택 관찰, 성분 분석, 문화 목록 수집 등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기법이 유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매우 다양한 조사 상황에서 각각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연구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된 연구 절차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사방법론과 관련된 보다 심도 깊은 인류학적 논의는 조사의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인식론적 문제와 연결된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80년대 이후 심각하게 논의되었지만 그렇다고 명쾌한 해답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필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수준의 견해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일정 정도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객관적인,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를 연구자가 찾는 작업이 불가능함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서 신주단지 모시듯 강조한 점은 맥락적 분석이었다. 하나의 현상을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문화인류학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기에 그리 새로운 것이 없지만, 현지 조사를 시작하는 필자에게 있어 더욱 더 절실히 다가왔던 지침이었

다. 맥락을 밝혀내야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사과정 전체를 통해 가장 많이 고려했던 조사의 방법이었다.

원론적 수준의 방법론적 지침만을 가지고도 현지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넉넉한 조사 기간이었다. 조사를 언제 끝낼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자료가 충분하게 모일 때까지 계속 조사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조사에 임할 수 있었고 그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성은 감소했다.

앞 절에서 자바 사람은 조사하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지적되었다. 자바 농촌은 조사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주었는데, 마을 내 모임이 빈번하게 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일정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마을에서 열리는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고 마을의 돌아가는 사정을 조금씩 알 수 있었다.¹¹⁾

정기 모임보다 빈도가 더 높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전통의례와 관련된 모임이었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 한두 달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준비 모임이 개최되었고 결혼식을 전후하여 집중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장례의 경우 장례식 당일부터 1주일간 꾸란 암송모임이 매일 밤 열렸고 이후에도 몇 차례 의례가 행해졌다.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루걸러 한 번씩 있을 정도로 모임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 고심하지 않은 채 조

11) 주기적으로 참석한 모임 중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는 반(班: RT) 모임(35일에 한 번), 부녀회(PKK)모임(35일에 한 번), 청년(Karang Taruna) 모임(35일에 한 번) 등이 있었다. 농업과 관련되어서는 물관리 모임(1년에 몇 차례)과 농업 교육(1년에 몇 차례)이, 예술과 관련되어서는 가믈란 연습(매 주 한 번) 및 자띠란(Jathilan) 연습(한달에 두세 차례)이 있었다. 종교 관련 활동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슬람과 관련되어서는 종교 강연(35일에 두 번), 꾸란 암송모임인 따흐릴란(tahlilan, 35일에 두 번), 어린이 꾸란 학교(1주에 한 번), 청소년 꾸란 강독모임(35일에 두 번)이 있었고, 기독교와 관련되어서는 일요예배(1주에 한 번)와 청소년 성경공부(1주에 한 번) 등이 있었다.

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보통 아침이나 오후에 한 건 정도의 인터뷰를 행했고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거나 마스지드에서 시간을 보냈다.

문화인류학적 연구의 핵심으로는 보통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거론된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두 방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참여 관찰을 통해 얻어진 의문을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양자가 동일 선상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참여관찰과 관련되어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 표현이 가진 문자그대로의 의미 때문에 특정 상황에 참여하여 관찰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단순히 참여하여 관찰한다고 해서 이를 참여관찰이라 말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단기간 방문한 지역에서 모임이나 의례에 참가하여 관찰하는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참여관찰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참여관찰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관찰되는 대상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상당히 이루어진 조건에서 연구가 진행될 때 진정한 의미의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참여관찰을 맥락적 이해에 기초한 관찰로 규정한다면¹²⁾, 조사지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시점 이후의 연구는 모두 참여관찰적 성격을 띠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웃과의 일상적 대화, 놀이, 모임, 의례, 심지어 인터뷰 등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참여관찰적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12) 이용숙 외가 지은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2012)는 참여관찰을 ‘자연스런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관찰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104-5)’으로 정의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참여 관찰의 핵심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본문에 제시된 ‘맥락적 이해에 기초한 관찰’로서의 참여 관찰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참여 관찰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참여관찰 자료 중 현실의 특정한 문제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기엔 적합한 것이 사례이다. 조사하면서 접하게 된 특정한 사례를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사례연구는 주변에서 벌어진 혹은 벌어졌다고 이야기되는 사건을 우연히 인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이 사건에 연루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그에 대한 해석을 추구할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했는지를 예시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독거노인의 집 보수와 관련된 예가 검토될 것이다.¹³⁾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도인 마을 이장의 집 뒤뜰에는 그의 먼 친척인 무슬림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는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다. 필자가 참여했던 마스지드 모임에서 이 집을 수리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후 기부금을 걷어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갖추게 되자 30여명의 주민이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보수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사례는 무슬림 주민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독거노인을 도와준 것이다. 하지만, 조사지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사례는 훨씬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조사지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 사이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어 왔다. 무슬림은 기독교도가 물질적 지원을 통해 무슬림을 기독교도로 유혹하고 있음을 의심했고 그 타계책으로 가난한 무슬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조했다. 독거노인의 집 보수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전통적으로 집 보수는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gotong-royong)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교환 네트워크

13) 이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Kim(2007: 197-200)을 참조할 것.

에 참여하지 않던 독거노인의 집이 보수되기 위해서는 그녀의 집주인인 이장의 재원과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했다. 무슬림에 의한 보수는 기존의 논리와 완전히 차이 났는데, 보수 과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의 이웃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셋째, 독거노인은 무슬림이지만 이장은 기독교도였다. 마을의 무슬림들이 경제적 지원의 첫 대상으로서 이장의 친척을 선정한 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기독교도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어려운 상황의 친척을 도와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이장을 공격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은 종교가 피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례는 무슬림이 기독교도와 의 경계를 종교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사례는 마을의 이슬람화(Islamization) 과정에 새로운 차원이 첨가되고 있음을 제시하는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를 해석하는 데에는 기독교-무슬림 관계와 노동력 교환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관련되어서는 노동력 동원에 참여한 몇몇 무슬림, 이장, 독거노인, 이장의 이웃주민과의 일상적 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었으며, 이슬람지도자 한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수리에 대한 공식적 견해를 청취했다.

적절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의 발생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쉽게 얻어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례연구 자료는 현실의 사실적 모습을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거시적 수준의 분석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기간에 따라 참여관찰과 사례연구 방식 그리고 인터뷰 방식을 조화로운 선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기간의 조사에서 사례에 집착할 경우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개괄적 수준의 자료보다 활용가치가 적은 지엽적인 수준의 자료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2) 개괄적 배경에서 핵심 주제로

이슬람으로 주제를 바꾼 후 마스지드는 주요 방문지로 부상했다. 이 후 마스지드를 ‘놀이터’로 삼는 젊은이들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필자는 이곳을 거의 매일 방문했는데, 저녁 기도를 하러 온 젊은이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보낼 최적의 기회를 제공했다.

호주에서 이슬람에 대해 사전 연구한 내용이 주로 자바의 이슬람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상이한 견해였기 때문에 이슬람 자체에 대한 필자의 이해도는 매우 낮았다. 이슬람으로 연구 주제를 바꾼 후 상당기간 동안 뚜렷한 초점 없이 이슬람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많이 얻고자 노력했다.

조사 초기부터 후반기까지 마을 내 이슬람의 발전 과정과 이슬람의 전반적 활동과 같이 개괄적인 수준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마을 이슬람의 특성을 보여줄 소재가 구체화되었는데, 처음 떠오른 것은 이슬람과 대립적 관계에 놓인 전통종교로서, 종교의례 및 종교적 믿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작업이 가능해보였다. 이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될 무렵 새로운 소재를 찾으려 시도했고 이슬람과 기독교간의 관계가 소재로 떠올랐다. 기독교 역시 이슬람과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두 소재에 대한 연구는 이슬람의 활성화가 마을 생활에 미친 영향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핵심 연구 과제로 선정된 주제에 대한 연구는 개괄적 수준의 자료를 얻는 것과 달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즉, 특정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 질문을 설정한 후 이와 긴밀하게 연관된 마을주민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행했다. 단기간에 행해졌기 때문에 연구의 종료 시점은 상대적으로 명확해서 특성 주제와 관련되어 인터뷰를 지속하던 중 새로운 내용을 듣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감소할 때 그에 대한 연구를 종결짓는 방식을 취했다.

연구의 초점을 전환할 때마다 직면했던 어려움은 마을 사람들의 의도성 없는 비협조적인 태도였다. 전통 믿음체계에 대한 경우를 보면 전통의례에 대한 연구가 끝날 즈음 두꾼(dukun)이라 불리는 초월적 힘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인물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였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두꾼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물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이슬람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통 믿음체계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던 경향, 전통 의례에 관심을 가진 인물로 고착화된 필자의 이미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만 정보를 포괄적으로 먼저 제공하지 않으려는 마을사람들의 성향¹⁴⁾ 등이 상호작용하여 만든 결과였다.

연구는 우연한 계기를 통해, 즉 알고 지내던 젊은이와 한담을 나누던 중 그가 두꾼으로부터 전통무술을 배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와 함께 두꾼을 만나고 온 사실이 마을 사람에게 퍼지자 급속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졌다. 놀라운 점은 한동안 아무리 물어보아도 찾을 수 없던 두꾼이 조사지에 서너 명이나 존재했다는 사실로써 마을 사람 대부분은 이들을 알고 있었지만 앞서 제시한 이유로 인해 선뜻 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해보면, 조사 대상자와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연구자의 이미지가 조사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할

14) 자바 사람들의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김형준(2012: 72-194)를 참조할 것.

수 있다. 호의적인 조사 대상자일지라도 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는 쉽지 않다. 다른 한 편으로, 필자가 원하는 자료를 나름대로 이해한 마을 주민은 필자의 취향에 맞는 이야기만을 들려주려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거의 매일 마스지드를 방문하며 이슬람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논농사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전통의례에 계속 참석하며, 두꾼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기독교도 활동에 참가하는 필자를 상당수 마을 주민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뚜렷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료의 획득이 가능하며, 연구자의 윤리적 문제 중의 하나, 즉 일방적으로 정보를 얻어간다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VI. 조사 끝내기: 자료 부족에 대한 공포

종교도간 갈등에 대한 연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당시까지 조사한 자료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다.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된 것은 사실이었다. 조사 마을의 이슬람 발전 과정, 이슬람 활동 양상, 이슬람과 전통 의례와의 관계, 전통 믿음과의 관계, 종교도간 관계에 대해 모은 자료 등 주요 소재가 다섯 가지는 되었으며, 서론과 결론, 조사지 소개를 덧붙일 경우 여덟 개의 장을 쓸 수 있을 듯했다. 이 정도면 박사 논문을 쓰기에 적절한 분량이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자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던 문제가 떠올랐다. 언제 조사를 마쳐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자 불안의 도는 높아져 갔다. 자료가 충분한지, 자료가 충분한지를 판단할 근거가 무엇인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을 질문이 몰려왔고 논문

을 쓰면서 자료 부족 상태에 부딪히리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금과 달리 재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기에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현지조사의 시작을 연구허가에 의존하여 결정했던 것처럼, 조사의 종결 역시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 해결했다. 호주 비자가 만료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는데, 만료된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결국 조사 종결을 세 달이 지난 후로 결정했다.

조사 기간의 마지막 삼 개월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가능하게 했다. 자료를 정리하고 녹취를 듣는 핑계 하에 낮 시간의 대부분을 하숙집에서 보냈고 저녁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었다. 인간관계는 점점 더 제한적인 집단으로 국한되었는데 이는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웃으면서 인터뷰를 해야 했던 상황에 상당히 지쳐있었음을 반증해주었다.

떠날 때가 가까워올수록 해야 할 일은 많아졌다. 마을 주민과의 인사는 송별식을 개최하여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마을 외부에 사는 사람은 일일이 찾아가 인사를 해야 했다.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와 같이 나갈 때에도 공식적 허가절차가 필요해서, 허가를 받았던 모든 관청에 조사 완료를 신고해야 했다. 복사물과 책으로 불어난 짐을 꾸리는 데에도 일주일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가 그러하듯 짐을 꾸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 동안 구입해 놓은 상당 양의 물건을 처리해야 했던 것이다. 몇몇 주민은 필자가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필요한 물건이 무엇임을 넌지시 전달하곤 했는데,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새로 물건을 구입해야 할 형편이었다.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물건을 하숙집에 남겨놓기로 했다.

조사지를 떠나야 할 시점이 가까워올수록 고민도 많아졌다.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조사지 주민과 제대로 교류하며 살았는지 등의

문제가 나를 계속 괴롭혔다. 고민의 정점은 송별식이 예정된 날 도래했다.

처음에는 송별식을 위해 소를 잡을 생각이었지만, 경제적 이유로 양을 잡았다. 마을 외부 사람을 방문한 후 정오 무렵 돌아와 부엌으로 갔다. 음식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복새통을 이루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섯 명뿐이었다. 하숙집 주인아주머니와 딸, 옆집 이준마 두 명, 하숙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하숙집 주인의 친척과 그녀의 딸이 전부였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의례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빈번히 보아왔는데, 필자의 송별식 준비과정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망감이 엄습했다. 나름대로는 마을 사람들과 커다란 무리 없이 살아왔고 가까운 사람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송별식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의례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던 필자로서는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이 라포(rapport) 형성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 같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았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은 필자의 탓일 수도 있지만, 매우 가깝게 지냈던 몇몇 여성들이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헤아릴 수 없었다. 게다가 전날 밤에도 이들과 함께 송별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들조차 참가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몇 시간 만에 필자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려 한단 말인가? 이는 조사 전체와 관련되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다. 떠날 사람이기에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이 곳 주민과 형성했다고 믿었던 신뢰관계가 필자만의 일방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조금 더 안정을 찾게되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여유가 생겼고

의문을 풀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의례를 통한 교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의례에서 남성은 공식적 절차를 통해 초대되지만, 여성은 비공식적 경로 즉 여성의 입을 통해 의례를 인지하게 되며 준비 과정에의 참여 역시 초대 없이 이루어진다. 음식의 경우 의례 음식을 만드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준비된 음식의 대부분은 부조와 노동력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졌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의례준비와 관련되어 하숙집 아주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의 질문에 대해 필자는 송별식 참가자로부터 부조를 받지 않을 것이며 모든 비용을 필자가 부담할 것이라 대답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다. 의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돈봉투를 들고 오며, 이런 이유로 이들에게는 추가적인 음식이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숙집 아주머니는 의례 준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자 한 듯했다. 이 설명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몇 안 되는 사람이 준비했지만 50여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음식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문제를 스쳐가듯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묻자 ‘뭐 때문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하면 되지’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적절한 설명을 찾았지만 그렇다고 기분까지 개운하지는 않았다. 송별식을 추진할 당시 노동력 부조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례에 대해 상당히 많이 연구했다고 자만했을지라도 여전히 깊은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앞으로 호주에서 허둥댈 필자의 모습을 예시하는 듯했다.

이렇듯 현지조사를 끝냈다는 뿌듯함이나 즐거움이 아닌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는지, 자료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분석이 가능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현지조사의 막은 내려졌다.

VII. 맺음말

필자의 조사지인 꼴로종고는 130여 가구로 구성된 마을이며 전체 인구는 600명 정도였다.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22개월여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마을의 거의 모든 집을 방문했고 거의 모든 마을 주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꼴로종고 이웃 마을이나 꼴로종고가 속한 면의 다른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인터뷰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면의 범위를 넘어서 족자까르따 州에 사는 사람을 만나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이용한 자료는 꼴로종고에서 얻은 자료였으며, 꼴로종고라는 공간적 단위에 준거하여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졌다. 필자의 연구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조사를 특징으로 하며 때로 마을 연구(village study)라고도 일컬어지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인류학 현지조사 방식에 기반했다.

전통적인 인류학 방식의 장점은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보다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 혹은 기어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1973), ‘중층 기술’(thick description)을 통해 맥락적 자료 해석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지역과 연구자의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을 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다.

전통적인 방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인류학자가 이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 주제에 따라 그와 차별적인 방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족지

(multi-sited ethnography)' 방식이 제기하는 것처럼, 사람, 물건, 은유, 이야기, 생애사, 갈등 등의 움직임을 좇아 여러 장소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이동식(mobile) 연구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Marcus 1995). 문화인류학이 아닌 다른 분과 학문에서 행해지는 지역 연구의 경우 전통적 방식의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그에 비례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현지조사 방식은 특정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자에게만 온전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방식의 장점은 지역 연구자 일반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이유가 맥락화된 해석이 제공할 수 있는 설명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기획하는 연구자에게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을 제한적으로나마 실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하나의 연구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맥락화된 자료의 중요성과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 경험은 이후에 전개될 다양한 지역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 과정을 보다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것으로 전환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인류학적 현지조사,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연구, 지역연구방법론,

<참고문헌>

- 김경일. 1997. “지역연구 대상과 방법 및 쟁점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학과 지역연구』. pp. 45-88.
- 김형준. 1998. “자바 이슬람과 크리포드 기어츠, 그리고 그 후 40년.” 『동남아시아연구』 6: 3-32.
- _____. 2000. “회교도, 기독교도 그리고 무신론 인류학자.” 『한국 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 나산한상복교수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183-211. 서울: 소화.
- _____. 2008. “인도네시아 자바인의 수평적 사회관계: 루꾼 개념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8(2): 1-32.
- _____. 2012. 『적도를 달리는 남자: 어느 문화인류학자의 인도네시아 깊이 읽기』, 서울: 이매진.
- 이용숙 외. 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일조각.
- 전경수. 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전제성. 2006.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 109-140.
- 최 협. 1997. 『인류학과 지역연구』. 서울: 나남.
- Clifford James & Marcus George. 1986.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PS(Badan Pusat Statistik) various issues. *Statistik Indonesia*. Jakarta: BPS.
- Geertz, Clifford. 1973.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Kim Hyung-Jun. 2007. *Reformist Muslims in a Yogyakarta Village: The Islamic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Socio-Religious*

Life. Canberra: ANU E Press.

Marcus George & Fischer Michael. 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An Experimental Moment in the Human Sci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rcus, George. 1995. "Ethnography in/of the World System: The Emergence of Multi-Sited Ethnograph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4: 95-117.

Spradley, James.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et al.: Holt, Rinehart and Winston.

(2013. 05. 31. 투고; 2013. 06. 18 심사; 2013. 06. 23 게재확정)

<Abstract>

Anthropological Fieldwork in Rural Java, Indonesia:
An autobiographic Description of the Process of Field Research

KIM Hyung-J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n autobiographic description of the author's field research in rural Java. Author's fieldwork was carried out for twenty one months in 1992 and 1993. As the process of fieldwork in Southeast Asia by Korean scholars has rarely been presented, this paper may be a reference point to discuss the procedures of the fieldwork, problems encountered by fieldworkers, and the difficulties and pleasure of doing research in foreign culture. The paper covers respectively the pre-fieldwork, fieldwork and post-fieldwork periods. As written in an autobiographic manner, this paper may provide comparative materials to those who are interest in doing area studies in foreign countries.

Keyword: anthropological fieldwork, Indonesia, Java, research method, area studies

